

빠르게 늘어가는 기대수명… 재고용 등 노동시장 개선 시급

2034년 한국인 기대수명 84.3세
1년 증가시 소비성향 0.48%p ↓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유도해야”

기대수명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이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평균 소비성향의 하락을 막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정년을 늦추거나 퇴직 후 재고용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펴낸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진단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3.0%였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4.1%에 지속적으로 못 미쳤다. 이



지난 23일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에 따라 ‘소비성향’ (GDP 대비 민간소비) 역시 내림세를 보이면서 2004년 52.1%에서 2024년 48.5%로 3.6%포인트(p)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과 관련해 KDI는 기대수명의 가파른 증가를 지목

했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2004년 77.8세에서 2023년 84.3세로 19년간 6.5세 늘어났다.

KDI의 김미루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했음에도 생애 주기상 퇴직 연령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퇴직이

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해 저축 성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DI는 지난 20년간 소비성향 하락(-3.6%p) 중 대부분(-3.1%p)이 기대수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추정했다.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은 평균 0.48%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1.9%p)와 60대(-2.0%p)에서 소비성향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이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층에 비해 적기 때문에 기대수명 증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는 소비성향이 2034년 46.3%까지 하락한 후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이 3.5세 증가하는 데 그치고, 초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커지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을 자체가 둔화하는 흐름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노동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민간소비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특히 기대수명 증가에 대응해 은퇴시점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방향으로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임금체계 개선 ▲직무 및 성과 중심 임금제도 강화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지난달 인구이동률 12.7%

서울 2개월 연속 순유입

부동산 경기, 인구 유출입 영향
“신규 아파트 지역 중심 전입 증가”

신축 아파트 입주가 늘면서 서울 인구가 두 달째 순유입됐다. 이에 반해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한 달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5년 3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54만9000명으로 전년동월에 비해 2.6%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2.7%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했다.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 2월(69만5000명) 이사 증가 등의 이유로 6.1% 증가했다가 한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 입주 효과와 부동산 경기가 인구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은 인구가 두 달째 순유입됐다. 2월 5600명, 3월에는 1300명 순증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인구 유입이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을 비롯해 인천(3600명), 경기(600명), 충북(900명), 충남(900명) 전남(700명), 경북(400명) 등에서 인구가 순유입됐다. 반면 부산(-2000명), 대구(-1600명), 광주(-2500명), 대전(-200명), 울산(-700명), 전북(-500명) 경남(-500명), 제주(-400명) 등에서는 인구가 순유출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둔촌주공이 작년 11월 말부터 계속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외에도 신규 입주 예정 아파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지역은 2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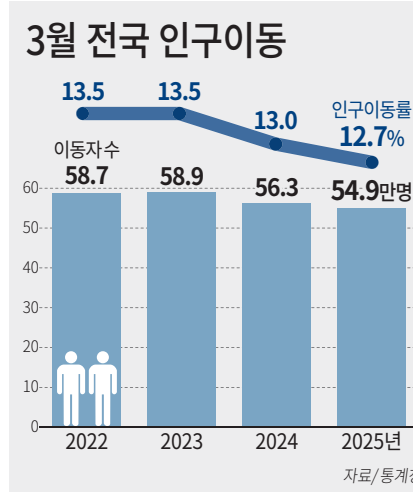
이어 “전남 장성과 나주 등 지역에 신규 아파트 입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순유입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전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통계청이 함께 발표한 ‘2025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 수는 2만35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출생아 수 증가율은 ▲2024년 7월 7.8% ▲8월 5.9% ▲9월 9.9% ▲10월 13.4% ▲11월 14.3% ▲12월 11.6% ▲2025년 1월 11.6%에 이어 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올해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월간 합계출산율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2월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2월 5.1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3명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튼튼한 안전자산 노란우산

더 오래,
더 튼튼하게

사장님 곁에
언제나

홍보대사 박미선

홍보대사 탁재훈

소득공제
최대 600만원

복리 이자
목돈 마련

부금 내
대출 지원

공제금
압류 금지

KBIZ 중소기업중앙회
가입문의 1666-9988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필 제24-167호(2024. 12. 24. ~ 2026. 1. 31.)